

치 사

**우리 종단은 그 출범과 함께 사명적
과제로 도제양성과 전법, 역경을 3대
사업으로 천명하고, 이를 실현하기
위하여 간난신고艱難辛苦의 현대사를
걸어왔습니다.**

**특히 제33대 총무원은 출범 선언
에서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을
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밝히고 36개
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**

**이러한 때에 당면한 포교현장의
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법활동을 하고
계신 스님들과 재가 역량들을 종단차원
에서 조직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법단의
출범을 보고받고, 종단 대표자로서 무한한
기쁨과 고마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.**

**종단 포교일선을 책임지는 포교원
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앙차원의 포교
결집대회를 시작으로 금년은 지역별
포교결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그간 침체되어 왔던 포교
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, 지치고**

**힘들어하는 포교역량들에게 용기를
북돋고 있습니다.**

**이와 병행하여 오늘 이 조계사
대웅전에서 출범하는 전법단은 불법에
목말라하는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
길벗이 되고 불국토로 안내하는 인레
자가 될 것입니다.**

**비록 많지 않은 인원으로 첫 걸음을
시작하는 것일지라도, 꾸준한 활동을
통해 함께하는 스님들이 늘어날 것임을
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렇기에 오늘
출범식은 종단 포교역사에 또 한 번의**

중요한 획을 긋는 것임을 증명해드립니다.

또한 종단 대표자로서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당면한 포교현장에서 전법 활동에 임하는 전법단 구성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리며 치사에 가름합니다.

불기2554년 4월30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